

## 견학 및 시상식 안내

### I 캠퍼스 투어 및 파르본 삼국유사 진본 견학

- 일시: 1월 30일(월) 11시 20분 ~ 12시
  - 코스: 위당관 → 연희관 → 본관 → 중앙도서관  
→ 이한열 동산 → 광혜원 → 박물관
- "견학 인원이 제한되므로 미리 신청하세요!"

### II 윤동주 기념관 및 언더우드 기념관 견학

- 일시: 2월 1일(수) 11시 ~ 12시
  - 1코스: 청송대 → 윤동주기념관 → 언더우드 기념관
  - 2코스: 윤동주기념관 → 언더우드 기념관 → 청송대
  - 3코스: 언더우드 기념관 → 청송대 → 윤동주기념관
- "특별 선물 '윤동주 시집'을 꼭 받아가세요!"

### III 에세이 공모 및 시상식

- 일시: 2월 3일(금) 11시 ~ 12시
  - 참가자 전원에게 수료증 수여
  - 시상 내역(에세이 제출자 중 우수자 5명 선발)
- A4 1매 분량의 에세이(주제:연세대학교와 나)를 1월 30일까지 humanart@yonsei.ac.kr로 제출하시면 글쓰기 전문 튜터의 첨삭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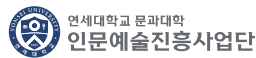
- 서대문구청장상 1명 (상장 및 상금 30만원)
- 문과대학장상 1명 (상장 및 상금 30만원)
- 특별상 3명 (상장 및 상금 10만원)

" 퀴즈 이벤트: 시상식 후에 인문학 캠프 강연 및 견학 프로그램에 대한 퀴즈 진행 후 정답자에게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 ▶ 찾아오시는 길



"차량 이용객에게는 주차권을 드립니다."



T. 02-2123-7920 humanart@yonsei.ac.kr

# 청소년 및 시민을 위한 연세 인문학 캠프

1/30일 2/1일 2/3일 09시~12시

연세대학교 위당관 B09

초 중 고등학생 및 시민(대학생 포함)

"참가비 무료"

주 최

서대문구청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주 관

국어국문학과 BK21 FOUR 교육연구단,  
영어영문학과 BK21 FOUR 교육연구단, 심리학과

## PROGRAM

### 1일차 / 1월 30일 (월)

- 09:00~09:25 **환영사 · 영상 축하**  
조강석 기획부총장 ·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 09:30~10:20 **시적 감수성과 예술적 상상력**  
나희덕 시인, 서울과기대 교수
- 10:30~11:20 **효율적인 칭찬과 꾸중**  
김영훈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 11:20~12:00 **캠퍼스 탐방 (본관 → 박물관)**  
홍보대사 및 인솔자

### 2일차 / 2월 1일 (수)

- 09:00~09:50 **동물과의 공생: 먹음의 주제**  
윤민우 연세대 영문학과 교수
- 10:00~10:50 **운동주의 삶과 문학**  
조강석 연세대 국문학과 교수
- 11:00~11:50 **운동주 기념관 및 언더우드기념관 견학**  
홍보대사 및 인솔자

### 3일차 / 2월 3일 (금)

- 09:00~09:50 **선동과 가짜 뉴스 시대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김학철 연세대 학부대학 교수
- 10:00~10:50 **우리 아이는 천재일까요?**  
김동규 울산대 철학과 교수
- 11:00~11:50 **수료 및 시상식 (상장 및 상금)**  
서대문구청장 · 문과대학장



"모든 참가자에게 예쁜 기념품을 드립니다."

## PROFILE

### 나희덕 시인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중앙일보 신춘문예 당선, 조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現 서울과기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창작과비평> <녹색평론> 편집 자문위원 역임, 대산문학상, 김수영문학상, 현대문학상, 소설시문학상 외 수상. 시집<뿌리에게> <그 말이 있을 물들었다> <여우위친다는 것> 외 산문집, 시론집 다수.

### 김영훈 교수

사우스플로리다대학교 심리학 학사, 아이오와주립대학교 사회심리학/통계 석사, 일리노이대학교 어버너-섀페인캠퍼스(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사회심리학 박사,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긍정심리학센터 박사후연구원으로 근무.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2012년~현재)

### 윤민우 교수

노스캐롤라이나대학 박사, 연세대에서 중세 영문학 및 유럽문학을 강의 중. 영화 <반지의 제왕>으로 유명해진 J. R. R. 톨킨의 작품을 독특한 시각에서 해석하는 논문을 다수 발표. '스토리텔링'이라는 문화현상을 지속적으로 탐구, 시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폭넓은 연구를 진행 중. 최근 관심사는 인간중심주의를 타파하는 포스트휴머니즘.

### 조강석 교수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문학평론가. 동아일보 신춘문예 문학평론 부문 당선. 현대문학상 수상. 주요 저서로 『한국시의 이미지-사유와 정동의 시학』, 『틀린의 기동』, 『한국문학과 보편주의』, 『이미지 모티프로지』, 『경험주의자의 시계』, 『아포리아의 별자리들』 등이 있음.

### 김학철 교수

연세대학교 신학과 및 동대학원 박사, 현재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교수로 기독교 강의 중. 로마 제국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배경으로 신약 성서를 해석하는 성서학 연구에 주력하면서, 시각예술을 통해 기독교 신학을 성찰하는 성서문학에도 관심을 두고 연구 중. 주요 저서로는 『렘브란트, 성서를 그리다』, 『마태복음 해석』 등.

### 김동규 교수

연세대학교 철학과 박사. 하이데거를 비롯한 유럽 현대 철학과 미학을 주로 연구. 서양 예술과 철학의 근본 정조인 멜랑콜리 연구에 매진했고, 현재 생물학과 철학의 창조적 접점 찾기에 관심을 쏟는 중. 최근에는 각종 매체에 철학 칼럼을 정기적으로 연재 중. 저서 『철학자의 사랑법』, 『멜랑콜리아: 서양문화의 근원적 파토스』 외 다수.

## LECTURE

### 시적 감수성과 예술적 상상력

시의 예술성이라는 주제 아래 제가 의도하는 것은, "시적인 것은 실제로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시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호미 이후, 향기 이후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주어진 모든 시가 지닌 속성들의 <나타난 장(場)>으로서의 <시적인 것>을 가리키지만, 그것은 또한 시 바깥에서도 언제-어디서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강연에서는 다양한 예술 작품들에서 <시적인 것>과 <예술적인 것>이 만나는 방식을 살펴봅니다. 특히, 여성 예술가들(파울라 모데르 존 베커, 마리스 아브라모비치, 아네스 바르다, 한설희, 장민숙)을 중심으로 말입니다.

### 효율적인 칭찬과 꾸중

칭찬해야 할까? 꾸중해야 할까? 꾸중은 쉽지 않다. 여러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우려는 우려일 뿐, 정확한 꾸중은 상대의 성과를 높이고, 성취동기를 울리며,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 정확한 꾸중이 필요할 때 도리어 칭찬한다면 상대의 삶을 망가뜨릴지도 모른다. 부적절한 칭찬은 사랑, 배려도 아닌 좋은 사람으로 남고픈 어설픈 이기심일 뿐. 정확한 꾸중에서도 일의 특성과 상대방과의 관계적 친밀도를 고려해야 한다. 본 강연에서는 이에 관한 심리학 연구를 살펴보고 건강한 칭찬과 꾸중의 방법을 찾고, 현실적인 제한점을 논의할 것이다.

### 동물과의 공생: 먹음의 주제

오늘날 포스트휴머니즘은 기계, 동물, 사물과의 공생을 지향하여 인간중심주의의 휴머니즘을 해체하고, 인간을 비인간의 차원으로 강등하는 인식의 변화를 겪게 한다. 지능부족, 인지능력 미달, 초보적 언어능력, 반성과 성찰 능력 결핍, 창의적인 세계 구성력 부족으로 평가되어온 동물에 대해 동물옹호론자들은 동물의 독자적 인지 및 생존 양식을 발견해 내는가 하면, 적어도 고통을 느끼는 동물 존재의 보호와 권리를 주장하기도 한다. 본 강연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공생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육식의 문제라는 넓은 주제 아래, 인간의 <먹음>에 대해 탐구해 본다.

### 운동주의 삶과 문학

운동주의 삶의 궤적을 명동촌, 연회전문, 동경, 교토 등의 공간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특히, 연회전문에서의 체험을 중심으로 운동주의 문학 정신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살펴보고 그것이 오늘날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본다. 나아가 직접 운동주의 시를 읽으며 그의 문학 세계를 함께 향수한다.

### 선동과 가짜 뉴스 시대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세계적 비극을 불러왔던 나치의 선동과 괴벨스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권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인 사람들은 이미 선동당해 있다." 2차세계대전이 끝났지만 선동은 끝나지 않았고, 4차산업혁명에 따라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할수록 선동은 가짜 뉴스의 형태로 더 빠르고 넓고 불가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그런 것들을 구별해서 우리 삶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나아가 우리와 사회를 고도 갈등으로 몰아넣는 시도를 차단하고 건강하며 풍요로운 현재와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요?

### 우리 아이는 천재일까요?

테크닉이 좋은 가수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훌륭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테크닉은 마음에 작은 떨림을 줄 수 있어도, 그것만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기는 어렵습니다. 무엇인가 덧붙여져야만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그 미지의 무언은 작가의 관찰 영역이 아닌 듯 보입니다. 마치 '주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필이 꽃혔다"거나 "그 분이 오셨다"라고 막연하게 표현합니다. 뮤즈의 영감이나 천재 개념이 동원되기도 하죠. 이번 강좌는 칸트의 천재 개념을 중심으로 창의성의 원천에 대해 성찰해 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